



검진센터 바로보기

신뢰할 수 있는 건강검진기관,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
이곳이 바로 제주지부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더 많은 역할과 기능을 주문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인다. 그래서일까? 견협 각 지부가 양질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부의 성장 또한 예사롭지 않다.



구정서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건강증진의원 원장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는 15개 다른 지부와 마찬가지로 명실상부한 건강검진기관이다. 그것도 제주도민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건강검진기관이다. 하지만 제주지부 구정서 원장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여기 오시는 고객분들 대다수가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건강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제주지부가 바쁘게 또 열심히 사시는 제주도민들을 위해 단순히 건강검진만 받는 곳이 아니라 힐링(healing)이 가능한 마음의 안식처로서도 각광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구 원장의 바람처럼 제주지부는 현재 건강검진기관, 그 이상의 역할을 하며 성장하고 있다. 이는 최고의 건진환경을 갖추고, 전 의료진이 고객의 웃음전도사를 자처하며 고객의 마음까지 살피는 세심한 노력을 계속해온 데 따른 결과다.



신항식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본부장

최고를 향하지만 누구나 다 최고가 되는 건 아니다. 최선을 향해 최선을 다할 때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제주지부 신항식 본부장의 말을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전문 의료진을 확보하고 최신 검진장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토털 의무기록 관리시스템을 통해 유소견자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협약병원과의 23차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검진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가검진기관평가에서 제주에서 유일하게 전 분야 최우수(S)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이 말에서 신 본부장이 특히 더 힘주어 말한 대목은 ‘최우수(S)등급 획득’이었다. 최선의 결과인 만큼 자부심이 남다른 것이다. 매순간 최선을 다하며 자부심을 키우고 있는 제주지부! 그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았다. “올해를 건강수명 120세 달성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검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입니다.”

제주지부, 그 시작을 이야기하다

제주지부의 역사는 전라남도지부에서 제주도에 직원을 파견하여 기생충 검사업무를 시작하게 했던 1969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제주지부는 제주도립병원(현, 제주의료원)의 병실 1개를 임대하여 기생충검사 업무를 개시한 후 제주간호전문대학교의 교실을 임대하여 검사업무를 이어가다가 1974년 1월, 제주도지부로 정식 발족함과 동시에 제주시 용담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구충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지부 초기 때의 검사 실적은 다소 저조했다. 부족한 검사기자재 등 열악한 환경 탓이 컸다. 그러다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제주도의 지원이 뒤따르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제주시 연동 소재 자체 건물로 이전했던 1992년도부터는 매년 목표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두었고, 이런 흐름을 이어가 2000년도에는 내원자 건강검진, 노인 건강검진, 학생건강검진, 근로자일반건강검진 등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을 대상으로 141,222명의 사업실적을 올렸는데, 이는 당초 달성목표대비 113.5%에 달하는 성과였다.



- 01 고객용 카페테리아
- 02 제주지부 외경
- 03 MRI 촬영
- 04 하복부 초음파
- 05 대장 내시경

02



현재의 '제주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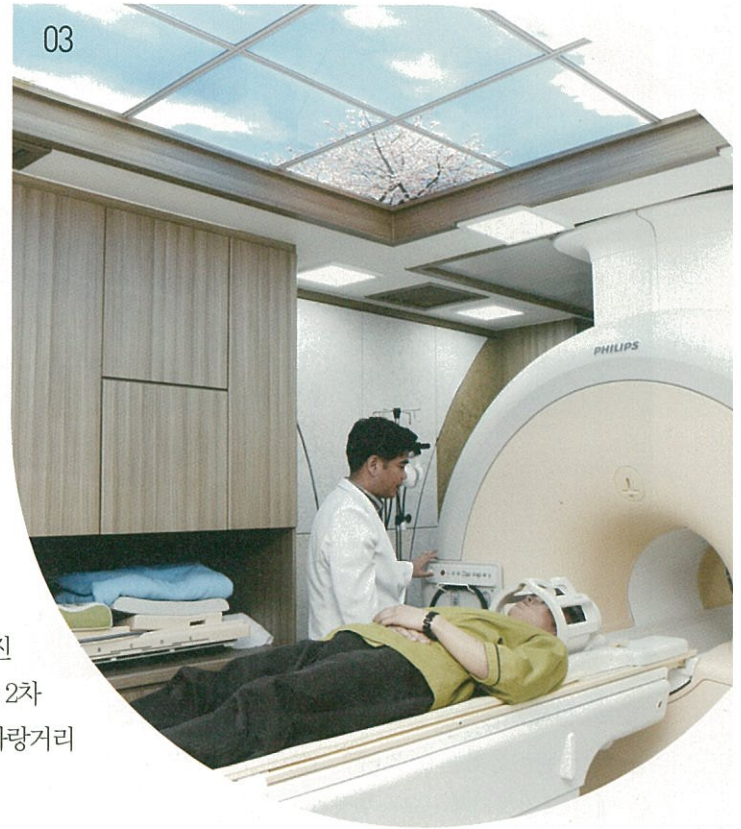
규모도 클뿐더러 폭포수 구비치고 있는 제주지부의 외관은 크고 깨끗하고 아름답기까지 하다. 자연, 여유, 휴(休), 건강을 테마로 디자인된 센터 내부 모습 역시 아름답기는 마찬가지다. 제주지부가 지금의 모습으로 고객을 맞이한 건 2011년도부터인데, 2010년 2월 현 청사 자리의 1,608.9㎡의 부지를 매입하여, 2010년 9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뜨기 시작하였고, 2011년 10월 연면적 4,313.97㎡의 제주도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검진센터를 준공하여 지금의 모습에 이른 것이다. 제주지부는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고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검진기관이 되기 위해 MRI장비, 초음파 장비, 내시경장비 등을 추가적으로 도입하고 전문 의료진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날로 늘어가고 있는 건강검진 고객 수요에 발맞추자면 규모, 시설, 장비, 인력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었기 때문이다.

제주지부의 자랑

제주지부만의 자랑은 건진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는 건진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 예로 내시경센터와 여성의학센터를 들 수 있는데, 먼저 내시경센터 내에는 5개의 내시경 공간을 두어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의학센터 내에는 여성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산부인과 전문 여의사가 검진을 담당하게 하여 여성고객이 보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지부의 자랑하면 학생검진 공간도 빼놓을 수 없다. 제주지부는 지하층에 학생검진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검진을 실시한 후, 제주시 관내 학생검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검진실적을 올렸고, 학생들의 대기 장소인 대회의실에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동영상 상영하여 학생검진과 함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진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는 CT, 초전도 MRI, 초음파 등의 최신 진단 및 검사 장비와 각 질환별 유소견자에 대해서 유소견 내용에 따른 2차 검진 및 재검을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알려주는 안내 시스템 등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다.



계속된 열정으로 건협이 위상을 높인다

제주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으로 지정받아 외국인 대상 건강검진을 유치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관련 세미나와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해외의료관광의 실태 파악에도 힘써 향후 추진목표수립에 반영하는 등 현재와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보건교육 및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축제 및 보건기념일 행사에 참여하여 건강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국민의 건강생활실천 유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공중파TV와 일간지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건강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매년 도민 공개강좌를 개최하여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목표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

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폐경기

이상지질혈증의 관계분석(2010

년), 대사증후군 유병율과 위험인

자의 상관관계(2011년), 규칙적 운동

이 건강관련체력과 혈중지질에 미치는 영향

(2013년) 등 각종 연구결과를 외부에 발표하는 기회를 확대

하여 협회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다.

